

【中文全文】

徐福在日本的傳承和信仰

水野 明*

一. 前言

徐福在日本各地的遺跡有50余處，傳說有30多種，古書記載有40多項。這在日本古今人物中，除徐福之外沒有第二人。濟州道正房瀑布有「徐市過此」的遺跡，是說徐福船團途中經過此地，沒有在這裡定居下來。徐福船團繼續又向東方航行，最後「得平原廣沢，止王不來。」那麼徐福最終到達的地方就可能是日本列島了。

二. 徐福是山東齊人

《塩鉄論》卷六〈散不足〉篇說：「及秦始皇帝覽怪迂，信穢祥。使盧生·求羨門高·徐市等入海求不死之藥。當此之時，燕齊之士積鋤未言神仙。方士於是趣咸陽者以千數。言仙人食金飲珠，然後壽與天地相保。於是數巡狩五嶽浜海之館，以求神仙蓬萊之屬，數幸之郡縣。富人以賞佐，貧者築道旁，其後小者亡逃，大者藏匿。吏捕索掣頓，不以道理。各官之旁，廬舍丘落，無生苗

* 愛知学院大学

立樹，百姓離心怨患者十有半。」這是說方士的出身，多為燕齊的人。這些方士都跑到咸陽去。圍繞在秦始皇的身邊，大談海上蓬萊·方丈·瀛州三神山和不死之藥的古事。這樣，秦始皇在出巡之前，或已有了些海上三神山的預備知識。徐福可能是齊地出身的最傑出的代表方士。徐福也很可能到過咸陽。或者隨着秦始皇一起出巡，到了琅琊，他才上書說服了秦始皇派他去入海求神藥。不是秦始皇到了琅琊之後，受到徐福的鼓吹，才派他入海。

《封禪書》說：「燕齊海上之方士」。

《漢書·郊祀志》中也說：「三神山，傳說在渤海中」。

上述記載，都是說三神是在渤海灣中的一些島嶼，不是在山東半島南部，而是在山東半島北部和東北的渤海灣中。

徐福可能是山東半島北部臨海齊人。

三．徐福船團是武裝農工船隊

齊人徐福在秦始皇三十七年(前二一〇年)時，向秦始皇要求「善射」「連弩」同行，這乃是說明徐福得到了秦始皇的同意，把船隊武裝起來，他們有了戰鬥的武器。我認為這些武器包含着弓·弩·劍·椎·斧·錘·矛·戈·匕首·槍·戟·鉞等。這些兵器都是春秋戰國時最流行的兵器。我更認為這些兵器，有的是銅製的，但大部分是鐵製的。

鐵器在戰國時代已普遍盛行，《孟子》·《荀子》·《戰國策》·《韓非子》·《墨子》等書中都有鐵器的記載。《山海經》中說：「出鉄之山，三千六百九十」。戰國之時，以鉄致富的商人非常多。《史記·貨殖傳》中有很多的記載。《漢書·食貨志》載：「商鞅為秦變法時，塩鉄之利已二十倍於古」。戰國時代鉄器更為驚人，欧冶子鑄劍技術為後世所熟知。他曾為越王鑄「謹戶·巨辟·勝邪·魚腸·純鈞」，後又与干將為楚王作三劍，曰：「竜淵·方阿·工布(或作市)」。皆為後世相傳的寶劍。

《漢書·貨殖傳》中記載中，如邯鄲郭縱以鑄鐵成業。趙人蜀卓氏，用鐵冶富，富至僮八百人，田地射獵之樂，疑於人君。梁人宛孔氏，用鐵冶為業，秦滅魏，遷孔氏南陽，大鼓鑄，規坡田，連車椅，遊諸侯，因通賈之利，有遊閑公子之名。然其贏得過當，愈於織賡，家富至千金，故南陽之賈，盡法孔氏之雍容。魯人俗儉賡，而丙氏尤甚，以冶鐵起富至巨萬。……鄒魯以其故，多去文學而趣利。程鄭，山東遷虜也，亦冶鐵。富埒卓氏，俱居臨邛。

由此可知山東地方冶鐵業的興盛。《管子》海王篇·地數篇中說，在管仲相桓公時，已有「有塩鉄之征，飲其論塩，雖少男少女所食；雖一鍼一刀所用，皆欲討之」。以上都是說明春秋戰國時齊國是鉄的產地。

《漢書·地理志》記載，東萊郡的東牟縣和膠東國的郁秩縣，都置有鉄官。膠東出土的鉄椎，現藏於煙台博物館。一九七八年在萊西縣岱野西漢木槨墓里挖出銅劍一把，刀一件，削一件，這些兵器全係烤藍處理，鏽跡很少，淬火度很強，鋒刃犀利。證明當時在膠東地區鉄器製造的冶煉·鍛打·淬火技術已經達到高度水平(見《文物》一九八〇年·十二期)。這些先進的煉鉄製鉄技術，由徐福所率領百工带到了日本是無疑的(參考李永先《徐福故里黃縣說補記》煙台師院學報 一九九〇年·三期)。當然其他鉄製的農工具也落到了日本。

總之，徐福船團是武裝的農工船隊。

四．徐福在日本的傳承和信仰

徐福船團是否到達了日本，這是近年來研究徐福東渡的大題目。

我認為徐福船團是沿朝鮮半島西海岸，南繞濟州道，最後到了日本的北九州西部一帶。因為徐福到達北九州的時期和日本彌生文化的發生是符合一致的。

《史記》淮南衡山列傳中說：「秦始皇大說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徐福得平原廣沢，止王不來」。所為「五穀」「百工」即是各種糧食種子和各行各業的技術工人。他們都攜帶有當時的先進的鉄製的兵器和農具。這一龐大的農工

船隊到達了北九州後，給日本原住民以絕對的刺激和影響，促成了弥生文化的生成。我們知道弥生文化是水稻的農耕文化和金屬工具的使用。

現在北九州佐賀平野是日本稻作發祥之地。相傳稻作為徐福所傳授，每年旧正月十五日，以「御粥」為供物，奉給徐福神靈。

徐福在佐賀的遺跡有二十余處。如諸富町搦東的徐福上陸地・坐石・浮盃，佐賀市的金立神社・雲上寺・三千坊等等。

其他如和歌山縣新宮市也有徐福登陸地。新宮市還有「秦徐福之墓」，山梨縣富士吉田市有「徐福祀」。

這些傳承未必就徐福一人，可能是徐福船團成員們在各地所留下的足跡。

日本各地之徐福傳說之外，徐福信仰，即把徐福神化的信仰也值得我們探究。

傳說現在的富士吉田市街地原為一大湖，曰明月湖，或曰明見湖。相傳有「紅龍神」棲於湖中，每年四月十五日為「產土神雨乞祭」。此為明見湖的龍神信仰。二月八日，九月八日「徐福雨乞祭」。칠월유「龍神祭」。都与徐福有關。吉田市南方有一小山，当地人呼之為御伊勢山，有一供奉天照大神的太神祀，伊勢山全域為神域，但這裡祭祀徐福祠。

這一地帶相傳為「高天原」，富士山古時稱為「蓬萊山高千火峰」。高天原有七座神祀。曰宮守神社・根天野神社・山守神社・高座神社・天照神社・寒川神社・幸灯神社。

富士吉田市內聖德山福源寺境內有一「鶴塚碑」。說徐福死後化為仙鶴昇天。

長野縣小縣郡和田村有羽田姓一族。羽田家之族譜記有：「秦氏家譜，先君之伝，「秦始皇帝之遠孫秦川勝苗裔……秦若狹之介清文長男・秦幸清」。秦幸清為羽田家之先祖。

紀元六〇三年，聖德太子賜秦河勝一座弥勒菩薩像，做為京都太秦慶隆寺大本堂佛像，慶隆寺別名秦公寺・河勝寺・大秦寺。慶隆寺有石碑一座。碑文由緒記有「秦河勝為秦始皇帝之子孫」一句。一九八一年三月將此句削去。

愛知縣名古屋市內的熱田神社，古時稱為「蓬萊宮」，現稱熱田神宮。藏有草薙劍。

各地的信仰傳說太多了。限於篇幅，不多記了。

五．小結

徐福在日本的傳承和信仰，真是舉不勝舉。我們可以推論說徐福這一大集團到了日本列島之後，他們起了先進的作用。因為他們有統率的領袖，他們有鐵製的武器和農工具，和原住民族融合起來，形成了新生文化，那就是彌生文化。

彌生文化是農耕文化。定居下來的集落・村庄，由小而大，並不斷擴大，促成了日本國家的產生。

徐福所率領的工・農・兵集團正是促成日本國家發展的先驅，因為他們體驗了秦帝國統一中國的過程和秦帝國的統一中國的模式。「神武天皇的東征」正是秦始皇由西方東進的重版。

【韓文全文翻譯】

일본에서의 徐福에 관한 傳承과 信仰

미즈노 아키라*

一. 머리말

일본각지에는 서복에 관한 유적이 50여 곳이 있고, 전설이 30여 종이 있으며, 古書記載가 40여 종이 있다. 이런 현상은 서복을 제외한 일본의 古今人物중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제주도 정방폭포에는 「徐市過此」라고 새겨진 유적이 있다. 이것은 서복의 선대가 여기를 경과하였을 뿐 정착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설명한다.

서복의 선대는 여기에서 계속 동쪽으로 항행하다가 「평원과 큰 늪을 발견하고 그곳에 머물러 왕이 되었다」. 그렇다면 서복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 가능하게 일본열도일 것이다.

二. 서복은 산동의 제나라 사람이다

《鹽鐵論》의 제6권 〈散不足〉 편에서는 「진시황은 괴이하고 엉뚱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祿祥(빌미와 상서)을 믿었다. 그는 魯生·求羨門高

* 愛知學院大學

·徐福 등을 바다에 보내 장생불로약을 구하게 하였다. 그 당시 燕·齊의 사람들은 농사일을 팽개치고 앞을 다투어 신선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리하여 咸陽에 모인 方士들이 수천 명을 헤아렸다. 그들은 신선은 금을 먹고 진주를 마시며 수명이 天地와 같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진시황은 여러 번이나 五嶽과 연해 지방을 순행하면서 神仙·蓬萊 등을 찾아 다녔다. 행차가 지나는 郡縣에서 부자들은 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길을 건설하였다. 그 후 비천한 사람들 중 열에 일곱은 도망가고 부귀한 사람들은 숨어버렸다. 하급관리들은 도리가 없이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 처리하였다. 여러 관아 옆에는 초막들이 널려져 있고 거기에는 살아 있는 풀과 나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으니 원망을 품고 마음이 변한 백성들이 절반을 차지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방사들이 燕·齊의 출신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咸陽에 가서 진시황의 주위에 있으면서 蓬萊·方丈·瀛州 등 三神山과 장생 불로약에 관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진시황은 순행하기 전에 이미 바다에 있는 三神山에 대해 일정한 요해가 있었을 것이다. 서복은 가능하게 齊 땅에서 나온 가장 걸출하고 대표적인 方士일 것이다. 이밖에 서복은 가능하게 咸陽에 가 보았을 것이고, 혹은 진시황을 따라 순행하였을 것이다. 琅琊에 이른 후 그가 비로소 바다에 가서 仙藥을 가져오는데 자기를 파견하게끔 上書文을 올려 진시황을 설복한 것이지, 진시황이 琅琊에 이르러 그의 허풍을 믿고 그를 파견한 것이 아니다.

《封禪書》에 이르기를 「燕·齊 해상의 方士이다」고 하였다.

《漢書·郊祀志》에서도 「전설에 의하면 삼신산은 발해에 있다」고 하였다.

상술한 기재는 모두 삼신산이 발해만의 어느한 섬에 있다는 말로서 산동반도의 남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의 북부와 동북사이에 있는 발해만에 있다는 말이다.

三. 서복의 선대는 무장한 農工세대이다.

秦始皇 37년(기원전 210년) 齊나라 사람 서복은 진시황에게 連弩를 가지고 善射가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서복이 진시황의 동의를 거쳐 전투무기로 선대를 무장하였음을 말한다. 내가 생각하건대 여기에는 弓·弩·劍·椎·斧·錘·矛·戈·鉞 등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春秋戰國시기에 가장 많이 유행되던 병장기로서 그중에는 銅製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鐵製였을 것이다.

鐵器는 戰國시기에 이미 보편적으로 성행하였던 것이다. 《孟子》·《荀子》·《戰國策》·《韓非子》·《墨子》 등 책에서는 모두 철기에 관한 기록이 있다. 《山海經》에 이르기를 「철이 나는 산은 3690개가 있다」고 하였다. 戰國시기 철로 부자가 된 사람이 아주 많다. 《史記·貨殖列傳》에는 이 방면에 관한 기록이 아주 많다. 《漢書·食貨志》에 이르기를 「商鞅이 진나라에서 변법을 실시하던 그 시기, 소금과 철에서 얻는 이윤은 고대의 20배에 달 한다」고 하였다. 전국시기에는 철기가 더욱 많았다. 歐冶子의 鑄劍기술은 후세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 그는 越王에게 「諶戶·巨辟·勝邪·魚腸·純鉤」라는 검을 만들어 준 적이 있고, 또 干將과 함께 楚王에게 「龍淵·方阿·工布(혹은 工市라 함)」라는 세 검을 만들어 준 적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후세에서 相傳하는 보검이다.

《漢書·貨殖列傳》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邯鄲의 郭縱은 鑄鐵로 成業하였다. 趙人 蜀卓씨는 철을 제련하여 부자가 되었는데 하인이 800명 있고 소유한 전답과 射獵놀이의 규모는 임금을 방불케 한다. 梁人 宛孔씨는 철을 제련하여 성업하였다. 진나라는 위나라를 멸망시킨 후 孔씨를 남양으로 이사시키고 주철업을 크게 권장하고 그에게 연못과 밭을 때 주었다. 그는 車馬를 줄 세워 거느리고 제후국을 유람하였으며 장사에 능통하여 遊閑公子라는 이름까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수록 더욱 인색해 졌고 가산은 천금에 달했다. 그리하여 남양의 상인들은

모두 그의 우아한 의용을 모방하였다. 魯나라 사람들은 인색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丙씨가 가장 심하다. 그는 철을 제련하여 거액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부자가 되었다. 이런 원인으로 鄒·魯의 많은 사람들이 文學을 버리고 돈벌이에 나섰다. 程鄭은 산둥에서 온 外族로서 그도 철을 제련하는 업에 종사하여 卓씨와 비길 수 있는 부자로 되었는바 이들 모두가 臨邛에 거주한다.

이상의 기록으로부터 산둥지역에서 鑄鐵業이 흥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管子》의 海王篇과 地數篇에서는 관중이 제환공의 재상으로 있을 때 이미 「소금과 철에 관한 세금 징수가 있었다. 그때 사람들은 소금에 대해 논하기를 즐겼다. 비록 少男少女의 음식과 한 개의 바늘·한 자루의 칼일지라도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려 하였다」고 하였다. 위의 기록은 모두 齊나라가 春秋戰國시기 철의 산지라는 것을 설명한다.

《漢書·地理志》에는 東萊郡의 東牟縣과 膠東郡의 郁秩縣에 모두 鐵官을 두었다는 기록이 있다. 膠東에서 출토한 鐵椎가 현재 煙臺博物館에 소장되어 있다. 1978년 萊西縣 岱野에서 발견된 西漢시기의 木槨墓에서는 銅劍·刀·削이 한 자루씩 출토되었다. 이 병장기들은 전부 烤藍(철의 표면을 산화시켜 검푸르게 함으로서 녹스는 것을 방지함)처리를 한 것으로서 녹이 적게 슬고 淬火度가 높으며 날이 예리하다. 이것은 당시 膠東지역의 철기제조에 관한 冶煉·鍛打·淬火 기술이 이미 고도로 발달하였다는 것을 말한다.(《文物》1980年 12期를 참조) 이러한 선진적인 煉鐵製鐵 기술을 서북이 인솔한 百工들이 일본으로 갖고 갔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李永先의 《徐福故里黃縣說補記》를 참조. 煙臺師院學報 1990年 3期) 물론 기타 철제 農工具도 일본에 넘어갔을 것이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서북의 선대는 무장한 農工선대이다.

四. 일본에서의 서복에 관한 전승과 신앙

서복이 일본에 도착하였는지 아닌지는 근래 徐福東渡研究에 관한 큰 과제이다.

나는 서복의 선대가 조선반도의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다가 남쪽으로 제주도를 돌아 마지막에 일본 北九州의 서부일대에 도착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서복이 北九州에 도착한 시간과 일본의 彌生文化가 발생한 시간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史記·淮南衡山列傳》에는 「진시황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五穀의 종자를 주고 百工을 달려 보냈다. 서복은 平原廣澤을 얻고 止王不來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五穀과 百工은 각종 양식종자와 직업기술자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모두 당시 선진적인 철제 병장기와 농기구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이 방대한 農工선대는 北九州에 도착한 후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막강한 자극과 영향을 주었고 중국적으로 彌生文化의 발생을 야기시켰다. 彌生文化가 벼농사를 위주로 한 농경문화와 금속 공구의 사용을 표징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다.

현재 北九州의 佐賀平野는 일본 벼농사의 발상지이다. 전하는데 의하면 이곳의 벼농사는 서복이 가르쳐 준 것이라 한다. 그리하여 舊曆으로 매년 정월 보름날이면 「御粥」을 공물로 서복의 신령에 바친다고 한다.

佐賀에는 서복에 관한 유적이 모두 20여 곳 된다. 예를 들면 諸富町 搦東의 徐福上陸地·坐石·浮盃, 佐賀市の 金立神社·雲上寺·三千坊 등이다.

이밖에 和歌山縣 新宮市에는 서복의 登陸地와 「奉徐福之墓」가 있고 山梨縣 富士吉田市에는 「徐福祠」가 있다.

이러한 전승은 모두 서복 한 사람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서복선대의 성원들이 각지에서 남겨놓은 발자국일 것이다.

일본 각지에 널려져 있는 이런 전설 이외에 또 서복신앙 즉 서복을 신격화 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

전설에 의하면 지금의 富士吉田 시까지는 원래는 큰 호수였는데 이 호수를 明月湖 혹은 明見湖라 불렀다고 한다. 이 호수에 「紅龍神」이 살고 있다 하여, 매년 4월 15일이면 「産土神雨乞祭」가 진행되는바 이것이 바로 明見湖에 관한 龍神信仰이다. 이밖에 이곳에는 2월 8일과 9월 8일에 「徐福雨乞祭」가 있고 7월에는 「龍神祭」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서복과 관계된다. 吉田市の 남쪽에 작은 산 하나가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御伊勢山이라 부른다. 이 산에는 天照大神을 모시는 太神社가 있고 산 全域을 神域이라 부르는데 여기에서는 徐福祠에 제사 드린다.

전하는데 의하면 이 일대를 「高天原」라 불렀다고 한다. 富士山은 옛적에 「蓬萊山高天火峰」이라 불렀다. 고천원 부근에는 7개의 神社가 있는데 이들은 각각 宮守神社・根天野神社・山守神社・高座神社・天照神社・寒川神社・幸燈神社이다.

富士吉田市 聖徳山 福源寺 안에는 「鶴塚碑」가 있는데 전하는데 의하면 서복이 죽은 후 선학으로 변하여 승천하였다고 한다.

長野縣 小縣郡 和田村에는 羽田이란 성을 가진 가문이 살고 있다. 이들의 족보에는 「秦씨의 家譜를 先君이 전했다」, 「진시황의 먼 손자인 秦川勝의 후예……秦若狹之介請文長男・秦幸請」이란 기록이 있다. 이 秦幸請이 바로 羽田가문의 선조이다.

기원 603년, 聖徳太子는 秦河勝에게 미륵보살상을 하나 하사하고 이것을 京都 太秦慶隆寺 대본당의 불상으로 쓰게 하였다. 이 慶隆寺의 別名으로는 또 秦公寺・河勝寺・大秦寺가 있다. 慶隆寺에는 돌비석 하나가 있다. 그 비문의 緒記에 원래 「秦河勝은 秦 始皇帝의 자손이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1981년 3월에 이 구절을 없애 버렸다.

愛知縣 名古屋 시내에는 熱田神社가 있는데 옛날에는 「蓬萊宮」이라 불렀고 지금은 熱田神宮이라 부른다. 이 神社에는 草薙劍이 소장되어 있다.

각 곳에 널려져 있는 서복에 대한 신앙과 전설은 아주 많으나 편폭의 제한으로 이만 줄이겠다.

五. 맺는말

서복에 관한 정승과 신앙은 일본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서복을 위수로 한 이 큰 집단이 일본열도에 이른 후 얼마나 많은 선진적인 작용을 하였는가를 우리는 推論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統率하는 領袖가 있고 철기로 된 무기와 農工具가 있으며 原住民族과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 즉 彌生文化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彌生文化는 농경문화이다. 그들이 정착하였던 부락과 마을은 작은 데로부터 큰 데로 부단히 확대되면서 일본국가의 산생을 축성하였다.

서복이 領率한 農工兵集團이 바로 일본국가의 발전을 축성한 선구자이다. 그것은 그들이 秦王朝의 중국통일 과정과 模式을 직접 체험하였기 때문이다. 「神武天皇의 東征」이 바로 진시황이 서방으로부터 東進한 업적의 재현이다.